

수업 현대소설의 재구성

이-05번

메모 활용법

모의고사 실력 향상을 위해 평상시 문학과 독서를 분석하도록 하자.

■ 시

화자, 청자, 시적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찾는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대신할 수 있는 시어를 찾는다)

■ 소설, 극

인물 관계도, 사건, 배경, 서술 방식, 상징적 소재

■ 수필

인물, 사건, 배경, 깨달음

■ 독서

단락 정리 및 내용 전개 방식

미니 모의고사 푸는 방법

■ 1주일에 5일씩 풀도록 한다.

평일에는 1-5회 문제를 풀고, 토요일에는 틀린 문제 오답을 하도록 한다. 일요일에는 문법을 복습하자.

■ 문학과 독서 지문은 반드시 시간을 체크하여 시간을 관리하도록 한다.

■ 채점은 그날 바로 한다.

■ 모든 문제의 근거는 지문 속에 있다. 반드시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 표시하도록 한다.

■ 틀린 문제는 해설을 바로 보지 말고 맞힐 때까지 다시 풀도록 한다. 정답을 찾았을 때는 해설지와 자신의 근거를 비교하며 확인한다.

■ 틀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맞힐 수 있는지 고민하자. 잘못된 풀잇법이 있다면 수정하자.

■ **학생들끼리 복사해서 공부하는 건 OK! 단, 수업용, 과외용으로는 무단 복사 및 배포 금지!**

미니 모의고사

수특 현대소설 01-05번

총 소요 시간

맞은 개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년 예비시행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작반작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나막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펍 소요하게 들린다.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 수록에 그 나라가 잘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라.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동에 서서 서로 말 소리가 아니 들리리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삼십여 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 또 이 소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듣고 기뻐할 줄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 저 플랫폼에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분주한 뜻을 아는지, 왜 저 전등이 저렇게 많이 켜지며, 왜 저 전보기계와 전화 기계가 저렇게 불분주야하고 때각거리며, 왜 저 흉물스러운 기차와 전차가 주야로 달아나는지 …….,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는가.

㉠ 이렇게 복잡복잡하는 속에 영채는 행여나 누가 자기의 얼굴을 볼까 하여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병옥은 혹 자기의 동창 친구나 만날까 하고 플랫폼에 내려서 이리 저리 거닐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도로 차실로 들어오려 할 적에 누가 어깨를 치며,
“병옥 언니 아니야요?” 한다.
병옥은 놀라 돌아서며 자기보다 이태를 떨어졌던 동창생을 보았다.
“에그, 얼마 만이여!”
“그런데 어디로 가요?”
“지금 동경으로 가는 길인데 …….”
“왜, 어느 세에 …… 여보, 그런데 좀 만나 보고나 가는 것이 아니라 …… 그렇게 무정하오.” 하고 썩 돌아서더니, “아 무려나 내립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한다.
“아니오. 동행이 있어서 …… 그런데 누구 작별 나왔소?”
“응, 아니, 언니 모르세요?”
“무엇을?”
“에그, 저런! 저 선형이 알지요. 선형이가 오늘 미국 떠난다오.”
“선형이가 미국?” 하고 놀란다. 그 여학생은 저편 이등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선 것을 가리키며,

“저기 탔는데 …… 이번에 혼인해 가지고 양주가 미국 공부하러 간다오. 잘들 한다. ㉡ 다 미국을 가느니 일본을 가느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썩는구먼!”

병옥은 여학생을 따라 선형이가 탔다는 차 앞에까지 갔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곁에 갈 수가 없다. ㉢ 선형은 하얀 양복에 맨머리로 창 밑에 서서 전송 나온 사람들의 인사를 대답하고, 그 곁 창에는 어떤 양복 입은 젊은 신사가 그 역시 연해 고개를 숙여 가며 무슨 인사를 한다. 전송인은 대개 두 패로 갈려서 한편에는 여자만 모이고, 한편에는 남자만 모여 섰다. 그 남자들은 모두 다 서울 장안의 문명하였다는 계급이다. 병옥은 한참이나 그것을 보고 섰다가 종로에서 선형을 찾아볼 양으로 그 차실 바로 뒤에 달린 자기의 차실에 올라왔다. 영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아까 탔던 사람은 거의 다 내리고 새로운 승객이 거의 만원이라 하리만큼 많이 올랐다.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 걸고, 어떤 사람은 창에 붙어서 작별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신문을 들고 앉았다.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은 병옥과 영채 둘뿐이다. 병옥은 자리에 앉아서 방안을 한번 둘러보고 영채더러,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았니?”

㉣ 어찌 남대문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혼란하여 집니다그러. 어서 차가 떠났으면 좋겠다.” 할 때에 벌써 종 혼드는 소리가 나고, “사요나라, 고키젠요우.” 하는 소리가 소낙비 같이 들리더니 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 어디 서, “만세,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인다. 또 한 번,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두 사람의 창밖으로 얼른한다. 그것은 모시 두루마기에 파나마 쓴 패였다. ㉥ 병옥은 아까 선형의 곁에 있던 사람이 형식인 것과, 형식이가 선형의 지아빈 줄도 짐작하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

영채는 형식이란 소리를 듣고 문득 가슴이 덜렁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무쪼록 형식을 잊어버리려 하였으나 방금 같은 기차에 형식이가 탄 것을 생각하매 알 수 없는 눈물이 자연히 떨어진다.

- 이광수, 「무정」-

정리

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수적인 관점에서 동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 ② 비유법과 열거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③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변모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작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⑤ 일상적 구어체에 가까운 산문적인 서술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 ‘여학생’은 상황 판단에 대한 무지로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② ㉡ : ‘선형’은 현실 도피를 꿈꾸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다.
- ③ ㉢ : ‘영채’는 구시대적인 권위나 특권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형식’은 개화된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⑤ ㉤ : ‘병욱’은 타인의 일에는 관여하기를 싫어하는 냉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할 때, 위 글에 나타나 있는 ‘기차’의 서사적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제 강점기에 기차는 우리 민족에게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다가온다. 또한 기차는 공포와 동경의 대상이 된다. 민중들이 기차를 탄다는 것은 생활 터전으로서의 고향 상실이라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였다. 반면 문명개화에 앞선 특권 계층들은 기차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 외국 유학을 하거나 서구 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다. 김동인도 지적하였듯이 이광수의 소설에서는 ‘기차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무정」에서도 기차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 ① 인물들의 사회적 계층과 위상을 보여 주는 수단
- ② 인물들에게 고향 상실감을 환기시켜 주는 매개체
- ③ 인물들의 만남을 통해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장소
- ④ 인물들이 지향하는 서구적인 근대 문명개화의 상징물
- ⑤ 인물들이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하게 해 주는 장치

4. ㉠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좌불안석(坐不安席) ② 간담상조(肝膽相照)
- ③ 진전반측(輾轉反側) ④ 침소봉대(針小棒大)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든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④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 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 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기어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으레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 곧 자기류의 만담 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⑤한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 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요 고자이마스카(선생님, 안녕하세요)? ... 히히 아메가 후리마스(비가 옵니다). 유키가 후리마스카(눈이 옵니까)? 히히 ...”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 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카 ...’ 하는 판이다.

그날 ⑥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 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옛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리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빠 하학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오십 분 만에 치는 종을 이십 분 만에, 삼십 분 만에 함부로 다가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략)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용인)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장사를 할 터덱쇼.”

한다. /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굽쇼, 가을부터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쵸. ⑦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겟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덱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⑧“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⑨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어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먹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간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 케 ... 와 나 ... 미다카 다메이 ... 키 ... 카 ...”*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A]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펴먹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이태준, ‘달밤’

* “사 ... 케 ... 와 나 ... 미다카 다메이 ... 키 ... 카 ...”: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는 뜻의 일본 가요.

정리	
----	--

5. <보기>에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 ㄱ. 과거와 현재를 병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 ㄴ. 인물의 특정 행위를 통해 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ㄷ.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ㄹ. 서정적 배경을 설정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ㅁ.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나’는 며칠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황수건’을 왜 ‘노랑수건’이라고 하는지 알게 되었다.
- ② ㉡ ‘황수건’은 ‘시학관’이 심심하지 않도록 ‘시학관’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
- ③ ㉢ ‘황수건’이 학교에서 쫓겨난 이유는 자신을 꾸짖는 선생님들에게 대들었기 때문이다.
- ④ ㉠ ‘황수건’은 자신이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 ⑤ ㉢ ‘황수건’은 ‘나’에게 장사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다.

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태준의 단편에는 주로 지식인의 입장에서 관찰한 당대 사회에서 소외받는 인물의 삶이 표현되어 있다. 관찰 대상인 작중 인물은 각박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들의 비극적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그들의 순박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서술자는 흔히 약자인 작중 인물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그러한 서술자는 당대의 소외받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를 대변한 인물로 볼 수 있다.

- ① 몇 마디 배운 일본말을 활용하여 일본인과 대화하려는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군.
- ② 색시가 달아날까 봐 학교 종을 마음대로 치는 ‘황수건’의 행동을 보니 그가 어리석음 정도로 순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겠군.
- ③ ‘나’가 ‘황수건’에게 장사를 하라며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것은 소외된 인물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연민이 표현된 것이로군.
- ④ 작가는 정 많은 ‘황수건’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 각박하고 인정 없는 당대 현실을 표현하려했군.
- ⑤ ‘나’가 어제 성북동 길에서 ‘황수건’을 보고도 먼저 피한 행위에는 ‘황수건’과 같은 인물을 소외시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군.

8. ㉡의 소식을 접한 ‘나’가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얹친 데 덮친 격이로군.
- ②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했어.
-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로군.
- ④ 싼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는 상황이로군.
- ⑤ 내 조언에 콧방귀만 뀌더니 결국 그렇게 됐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년 6월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 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은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발스 센티멘털」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 전에,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소리가, 구포 씨 아니오—— 구보는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이삼 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에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알은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끄떡하여 보이고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내가 또 한 번, 역시 큰 소리로, 이리 좀 안 오시료,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 씨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 싶은 것을 눈치 채자, 사실, 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구포 씨를 선전하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허허 웃었다. 구보는 의미뭉뚱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高給)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 십 명의, 또는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보 선생, 하고 최 군이라 불린 사내도 말참견을 하여, 자기가 독견(獨鵲)의 「승방비곡(僧房悲曲)」*과 윤백남(尹白南)의 「대도전(大盜傳)」*을 걸작이라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어느 화재 보험 회사의 권유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루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최 군은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원고료(原稿料)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내가 원료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료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서 벗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 들고, 마약 자리에 앉으려는 벗에게,

“나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승방비곡」·「대도전」: 193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

정리

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 ④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 ⑤ 점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10. ㉠~㉣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 :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 :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 ⑤ ㉤ :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12. 위 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다고 가정할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내 :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내 후배라고. 대단하지요? 자, 대충 보았으니 이제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한턱내지요.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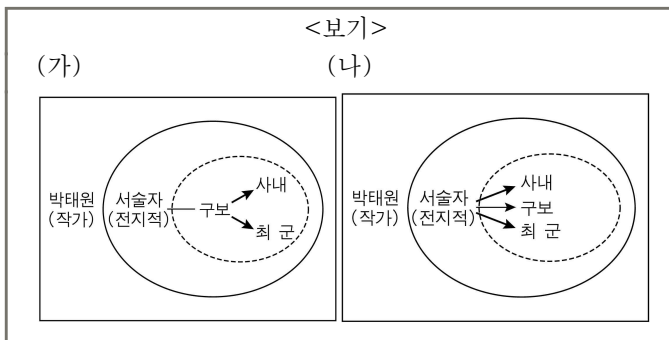
최 군 :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작품이 화제랍니다. 저 작품 좀 보고 갑시다. 그래야 교양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②

구보 : 글썄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③

최 군 : 그래도 이런 작품 하나쯤 거실에 걸어 두면 품이 날 텐데,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④

구보 : 아무튼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해서 문제예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요. ⑤

11. 위 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 ②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의감을 맛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 ③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의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 ④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특의감을 맛보고 있었다.
- ⑤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특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년 3월

[A] 그러나 옛 동무는 너무나 영락(零落)하였다. 모시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 오직 새로운 맥고모자를 쓴 그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하다. 구보는 망설거린다. 그대로 모른 채하고지날까. 옛 동무는 분명히 자기를 알아본 듯싶었다. 그리고,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싶었다. 그러나,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 지나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포착하여, 구보는 용기를 내었다.

“이거 얼마 만이야, 유(劉)군.”

그러나 벅은 순간에 약간 얼굴조차 붉히며,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B] “그동안 서울에, 늘, 있었어.”

“네.”

구보는 다음에 간신히,
“어째서 그렇게 뵈올 수 없었어요.”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맞보며, 그래도 또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 생각할 때, 그러나 벅은, 그만

[C]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구보의 앞을 떠나, 저 갈 길을 가버린다.

구보는 잠깐 그곳에 섰다가 다시 고개 숙여 걸으며 울 것같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낯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기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쩔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여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낯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며, 결코 녀석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얇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胃擴張)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엷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 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 드난 : 임시로 남의 집 행랑에 붙어 지내며 그 집의 일을 도와줌.
* 쓰메에리 : 목을 둘러 바깥 여미게 지은 양복.

정리	
----	--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②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 ③ 공간을 이동하며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⑤ 과거 회상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14.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보와 ‘옛 동무’의 물리적 거리는 [A]에서는 가까워지며 [C]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 ② [A]에서 구보가 ‘옛 동무’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C]로 가면서 심화되고 있다.
- ③ [A]와 [C]에는 ‘옛 동무’에 대한 구보의 복합적인 감정이 직접 서술되어 있다.
- ④ [A]에서 ‘옛 동무’가 구보를 대하는 태도에서 두 사람이 반목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 ⑤ [B]에서 구보와 ‘옛 동무’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소통에 대한 구보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구보가 관찰하는 것은 사람들의 몸과 그 연장선인 그들의 행색이나 행동이다. 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세계와 교섭하며 그 흔적을 내재하고 있는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이다. 구보의 시선이 포착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병든 육체와 정신이다. 이는 식민지 근대에 대한 구보의 진단이자,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 ① ‘구보’가 ‘대학노트’를 꺼내 든 것은 ‘바세도씨병’을 앓는 ‘노동자’와 그를 대하는 ‘젊은 아낙네’의 태도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든 시대의 일면을 포착한 때문으로 볼 수 있군.
- ② ‘군중’들이 ‘온정’을 잃고 ‘남을 결코 믿지 않는’ 모습에 ‘구보’가 ‘딱하고 가엾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병든 정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볼 수 있군.
- ③ ‘노파’의 ‘굳어 버린 안면 근육’과 ‘딸의 그지없는 효양’으로도 감동시킬 수 없는 ‘눈’은 육체적, 정신적 생기를 상실한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④ ‘깍 쓰고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의혹을 갖는 두 눈’에 지식인의 우울과 회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구보’ 역시 ‘만성 위확장’을 앓는 환자라는 사실은 구보의 ‘고독’한 내면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년 11월 고1

S#79. 마당-대청

정숙과 옥희 마당을 횡단한다.

옥희 (대청으로 올라오며) 이 꽃 예쁘지?

정숙 응. 웬꽃이니?

S#80. 안방

그들 들어오며

옥희 아저씨 안 돌아오셨우?

정숙 응.

옥희 엄마 말이지 말이지,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줬어.

정숙 사랑 아저씨가?

옥희 응. 엄마갓다주라구.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정숙 흠칫 놀란다. 그리고 짐짓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방 안을 휘 한번 둘러본다.

옥희 엄마 또 골났우?

정숙 골은?

옥희 꽃병에 물 넣어 올게.

하며 꽃병을 들고 문으로 나간다.

①꽃을 들고 냄새를 맡으며 곰곰이 생각하는 애절한 감정. 이윽고 옥희 꽃병에 물을 넣어가지고 들어온다.

정숙 옥희야! (하며 옥희의 두 손을 잡으며) 이 꽃 정말 아저씨가 엄마 갓다 주라고 주셨니?

옥희 응.

정숙 이런 걸 받아오면 못써!

옥희 왜 못쓰우?

정숙 못써!

옥희, 꽃병에 꽃을 꽂는다.

옥희의 소리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엄마가 이 꽃을 받고 것처럼 성을 낼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도 성을 내는 것을 보니까 그 꽃을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고 아저씨가 주더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참 жал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숙 옥희야!

옥희 응?

정숙 너 이 꽃 애기 아무 보구도 하지마. 응?

옥희 왜 하지 마?

정숙 엄마가 하지 말라문 하지 마.

옥희 할머니한테두?

정숙 응.

하며 꽃병을 들고 와 피아노 위에 놓곤 짐짓 바라본다.

S#81. 달(밤)

휘황히 밝은 달.

피아노 소리 정감을 돋운다.

S#82. 사랑방

천사처럼 자고 있는 옥희.

그 자는 얼굴을 그리고 있는 선호.

안방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선호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S#83. 안방

불도 켜지 않은 방.

창에서 흘러 들어오는 월광이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정숙의 언저리를 환히 비치고 있다. 항상 제자리에 놓여있던 죽은 남편의 ㉡사진이 자취를 감추었다. 정숙 나직이 노래를 부른다.

S#84. 사랑방

정숙의 ㉢노랫소리.

이를 듣고 있는 선호의 걱정된 얼굴.

피아노와 노랫소리는 차츰 고조되어 간다. 그러자 갑자기 피아노와 노랫소리 딱 멎는다.

S#85. 안방

피아노 위에 엎드려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 정숙.

이때 밖에서 선호의 기침 소리.

선호 (E) 아주머니! 주무십니까?

소스라치듯 머리를 들며 눈물 자국을 훔치는 정숙.

선호 (E) 험!

정숙 조용히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간다.

S#86. 마당-대청

휘황히 밝은 달빛 아래 선호가 잠든 옥희를 안고 서 있다. 대청 끝까지 걸어 나와 이를 본 정숙, 어쩔 줄을 모른다.

정숙 아니 재가......

선호 곤히 자는 걸 깨우기가 안돼서......

정숙, 선호의팔에서옥희를 받아안는다.

눈과 눈이 확 부딪친다.

잠시 동안 서로의 시선은 피할 도리가 없다.

정숙 돌아서 ㉣안방으로 돌아간다.

지그시 보던 선호 돌아선다.

- 임희재각색, 「사랑방손님과어머니」

정리

16.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79에서 S#80으로 넘어갈 때, 공간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의 위치를 달리하여 촬영함시다.
- ② S#80에서는 인물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내레이션을 활용함시다.
- ③ S#84에서는 인물의 표정을 강조하기 위해 클로즈업 기법을 활용하도록 함시다.
- ④ S#85에서는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기 위한 효과음을 활용함시다.
- ⑤ S#86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냉정한 어조로 대사를 처리함시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정숙이 '사진'을 감추는 계기가 된다.
- ② ㉡ : 정숙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도구이다.
- ③ ㉢ : 정숙을 억압하는 현실적 제약을 상징한다.
- ④ ㉣ : 선호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⑤ ㉥ : 정숙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되찾는 공간이다.

1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불연속적인 장면의 연결을 연속성 있게 만들거나, 연속된 장면을 의도적으로 불연속의 상태로 만든 뒤 새로운 대상을 보여 주는 것을 '컷 어웨이(cut away)'라고 한다. 가령, 물을 올리는 장면(S#1)과 물이 끓는 장면(S#3) 사이에 시계를 비추는 장면(S#2)을 삽입하여 시청자가 시간의 경과로 물이 끓고 있다는 것을 수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삽입되는 장면(S#2)이 컷 어웨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컷 어웨이'는 시·공간적 비약을 암시해 주는 기능이 있다.

- ① S#81 ② S#82 ③ S#83
- ④ S#84 ⑤ S#8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4년 3월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끗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게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려지고, 닫혀지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과—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가]**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머영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 중략 >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넓은 서울의 호호와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 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여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연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

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얇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 ‘대학노트’를 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쪼는 캡 쓰고 린네르 즈메에리 양복 입은 사나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 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정리

19. <보기>처럼 위 글의 작가와 대담을 한다고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회자 : 상당히 인상 깊은 소설이었습니다. 여러 풍경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작 가 : _____

- ① 도시 문명의 여러 측면들을 분석적으로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의 삶을 억압한다는 것을 고발하려고 했지요.
- ② 주로 묘사된 풍경들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지요. 작고 소박한 것이 아름답다는 인생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 ③ 피폐한 도시 풍경과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현실의 비극을 초월하여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 ④ 도시의 풍경과 군상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하고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삶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 ⑤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심층 심리를 분석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 <보기>와 관련지어 위 글에 대한 감상을 말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기>

1930년대의 경성은 식민지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순을 잘 보여준다. 도시 문명이 자리 잡으면서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지만, 실상 사람들은 궁핍과 좌절의 상태에 있었고 지식인들은 심한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 ① 종로 거리의 전차나 철도 등은 근대 도시로서의 면모와 관련지어 볼 수 있겠구나.
- ② 구보의 거리 방향과 고독감은 당대 지식인의 정신적 무력감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근대적 모습의 경성역과 그 곳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시대적 모순을 잘 보여 주는 것이로군.
- ④ 백화점에 나들이 나온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변화 조짐을 보여 주고 있구나.
- ⑤ 구보의 눈에 띈 많은 사람들이 피로에 젖은 사람들로 묘사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맥락과도 연결되는구나.

21. ㉠에 나타난 '구보'의 심정과 유사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은?

- ① 도망군이 짐싸가지고 술밭길을 빠지듯 / 야반(夜半) 국경의 들길을 달리는 이 괴물이어! // 차창밖 하늘은 내 답답한 마음을 담았느냐
- ②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③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거냐. /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 앞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거냐.
- ④ 이른 아침 길가에 오가는 / 튼튼한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 그들의 / 공 던지는 날랜 손발, 책보 긴 여생도의 힘있는 두 팔 / 그들의 빛나는 얼굴, 활기 있는 걸음걸이
- ⑤ 어둠의 나라 땅 밑에 번드시 누워 / 흙물 달게 빨고 마시다 / 비오는 날이면 땅위에 기어나와 / 갈 곳도 없는 길을 헤매노니 // 어느 거친 발길에 채이고 밟혀 / 몸이 으스러지고 두 도막에 잘려도 / 붉은 피 흘리며 흘리며 나는야 / 아프고 저린 가슴을 뒤틀며 사노라

22. <보기>는 ㉠에 대해 탐구 학습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다. 이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1점]

<보기>

접두사는 어근(語根)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의 '옛-'은 접두사로서 '옛보다', '옛듣다' 등 일부 동사에서만 쓰인다. 일부 접두사의 경우 관형사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접두사는 결합이 제한적인 반면에, 관형사는 결합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이 다르다. 접두사는 붙여쓰고 관형사는 띄어 쓴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상 생활에서의 띄어쓰기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 ① 날이 더워 흠이불만 덮었다.
- ② 새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다.
- ③ 군식구가 더 늘어난 셈이었다.
- ④ 그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났다.
- ⑤ 맨손으로 싸워서 적을 물리쳤다.

23. <보기>가 ㉠에 적힌 구보의 기록이라고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아낙네의 행동
 - 그 이유와 의미를 인간의 본성과 관련지어 보면?
 - 오늘날의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것일까?

⇒ _____

- ① 인간의 무지함이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과연 그 여인의 염려대로 그 병이 전염되는 것인가?
- ②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일 것이다. 그 여인에게는 별것 아닌 물건이 그 노동자에게는 소중하게 쓰였을 것이다.
- ③ 불결한 것을 피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이다. 쾌적한 삶의 환경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문화는 발전하는 법이다.
- ④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자신이 지닌 것에 대해서도 큰 애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 ⑤ 혐오스러운 것을 피하려는 심리이자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인 셈이다. 자기에겐 피해가 될 존재들과 얽히는 것을 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답지

1) ㉠ ①

2) ㉠ ④

3) ㉠ ②

4) ㉠ ①

5) ㉠ ④ [해설] 나.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담배를 피우거나, 슬픈 일본 가요를 되풀이하여 부르는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그가 현재 답답한 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ㄹ. 밝은 달밤이라는 서정적 배경을 통해 '황수건'의 쓸쓸한 심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ㄴ. '나'가 달밤에 길을 걸어 나오는 '황수건'의 행위를 보면서 '황수건'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점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노트] ㄱ. [A]는 서술자인 '나'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을 회상하는 부분으로,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나란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ㄷ. [A]는 '황수건'을 아는 체할지에 대해 잠시 고민하는 '나'의 내적 갈등이 나올 뿐,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6) ㉠ ④ [해설] '황수건'은 삼산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매우 좋아하므로, 학교 앞에서 어떤 장사를 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오답 노트] ① '노랑수건'은 '나'가 요 며칠 사이에 '황수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가 우스운 일을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다. ② '황수건'은 '시화관'과 마주 앉아서 자기류의 만담 삼매경에 빠졌다. ③ '황수건'이 학교에서 쫓겨난 것은 급사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⑤ '나'가 '황수건'에게 돈을 빌려 준 다음 날의 사건이므로 '황수건'이 장사에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7) ㉠ ⑤ [해설] '나'가 어제 성북동 길에서 '황수건'을 보고도 먼저 피한 행위에는 '황수건'과 같은 인물을 소외시킨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황수건'이 '나'를 보면 무안해할까 하는 마음 때문이다. 즉 '나'는 '황수건'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피하려 한 것이다. [오답 노트] ① '황수건'의 엉뚱한 행동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황수건'은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행동을 할 정도로 순박한 인물이다. ③ 지식인인 '나'가 '황수건'에게 조건 없이 돈을 빌려 준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 많고 꾸밈없는 '황수건'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하는 아픔을 겪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각박하고 인정 없는 당대 현실을 드러내려 하였다.

8) ㉠ ① [해설] '나'는 조건 없이 '황수건'에게 장사할 돈을 줄 정도로 '황수건'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황수건'이 장사를 잘해 이득을 보았다는 소식 대신에 '황수건'이 장사를 망쳤으며, 심지어 아내까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는다. 따라서 ㉡의 소식을 접한 '나'는 '황수건'에게 불행한 일이 거듭하여 일어나는 것을 걱정할 것이다. 불행한 일이 거듭하여 일어난다는 뜻의 속담으로는 '엮힌 데 뉘친 격'이 있다. [오답 노트] ②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핑계거리가 있다는 말. ③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말. ④ 앞뒤 가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⑤ 아니꼽거나 못마땅하여 남의 말을 들은 채 만 체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말.

9) ㉠ ③ [해설] 이 글은 구보 씨가 다방에서 벼를 기다리던 중에 평소 왕래가 없으면서도 아는 체를 하는 중학교 동창 및 그의 동료들 만나 썩 내키지 않는 화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문을 들어서는 벼와 함께 다방에서 벼어하는 장면이다. 여기 제시된 지문만 놓고 보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고 있지만, 주인공인 구보 씨의 내면 의식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 두서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인과성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 배열을 통해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다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과 작가의 원고료에 대한 대화를 통해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② 이 글의 서술부는 전반적으로 과거형 어미로 진술되고 있으나,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는 문장만큼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의 대화 부분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뒤섞여 있는데, 이를 통해 등장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보 씨.',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처럼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0) ㉠ ④ [해설] 이 글에서 구보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사내'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합석하여 대화를 나눈다. 따라서 ㉡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는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작품을 남들에게 선전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상대방을 자신의 독자 권유원으로 삼으면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난데없이 생각한 자신의 내면 의식에 대해 스스로 유치하다고 여기며 어이없게 웃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다방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온몸에 느낀다는 것은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태도라 할 수 있다. ③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행동하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간신히'라는 부사로 볼 때, 구보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 ④ [해설] <보기>에 제시된 (가)와 (나)는 모두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는 그림이므로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된 ①, ②는 제외하고 답을 골라야 한다. (가)의 시점은 전지적 서술자가 구보의 입장에서 '사내'의 심리를 추정하여 서술하는 시점이다. 반면 (나)의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서술자가 직접 '사내'의 심리와 '구보'의 심리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유의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여, 서술자가 관찰만 하고 있을 뿐 '사내'의 내면 심리를 모르고 있는 듯이 서술한 ③은 (나)의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서술자가 '사내'와 '구보'의 내면 심리까지 꿰뚫어 보고 서술한 ④가 (나)의 시점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오답피하기] ①, ② 1인칭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특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추정함으로써 서술자가 '사내'의 심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서술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 ⑤ [해설] 이 글에서 '구보'는 원고료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최 군'의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만, '최 군'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는 이 글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 대화이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 '사내'는 예술 작품 자체보다 그 작품을 쓴 작가와 자기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② 이 글에서 '최 군'은 당시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에 대해 걸작이라고 생각하며 구보의 동의를 구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③ 이 글에서 ‘구보’는 ‘최 군’이 말하는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동의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③처럼 말하는 것도 이 글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와 어울리는 대화라 할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최 군’이 원고료에 관심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④처럼 그림의 가격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글에 나타난 ‘최 군’의 태도와 어울리는 대화라 할 수 있다.

13) ㉠ ③ [해설] 구보는 옛 동무를 만난 다음 남대문 밖으로 나와 경성 역을 향해 간다. 역 안에서도 삼등 대합실, 매점 옆을 지나고 다시 그곳을 떠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14) ㉠ ④ [해설] [A] ~ [C]에는 구보가 옛 동무를 만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A]에서 옛 동무는 영락한 행색으로 인해 구보가 자기를 알아 볼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구보는 그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따라서 두 인물이 반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두 사람이 마주 걸어오고 있으므로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진다. 그러다 [C]에서 옛 동무가 저 갈 길을 가버림으로써 거리가 멀어진다. ② [A]에서 기대와 망설임을 보이나 [C]에서 올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따라서 심리적 거리감은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A]에는 기대와 망설임과 용기 등이 복합되어 있으며 [C]에는 서운한 감정과 다시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복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⑤ [B]에서 구보와 옛 동무는 말을 주고받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에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구보에게 슬픈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15) ㉠ ④ [해설] ‘캡 쓰고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온갖 사람들에게 의혹을 갖는’ 눈에서 구보는 우울을 느끼며 그곳을 떠난다. 따라서 이 인물의 눈에 우울과 회의가 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바세도씨병’ 노동자는 병든 육체의 일면을, 이 사람을 경계하며 소외시키는 젊은 아낙네의 태도는 정신적 불건강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노트’는 관찰자이자 기록하는 자로서의 소설가 구보의 역할을 보여준다. ② 구보는 삼등 대합실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익명적 인간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 드난살이에 삶의 즐거움을 잃고 경직되어 있는 노파의 얼굴에서 생기없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⑤ 구보는 사람들에게서 병증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 역시 병자라고 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근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다.

16) ㉠ ⑤ [해설] 안방과 사랑방이라는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 선화와 정숙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만 정숙은 죽은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런 내면의 갈등은 옥희가 정숙에게 꽃을 꺾어다 준 날 밤에 피아노를 치며 엮드려 흐느끼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S#86은 사랑방에서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를 듣다가 잠든 옥희를 선화가 안아다가 정숙의 품에 안겨주는 장면인데 서로가 시선을 통해 애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때, 대사를 냉정한 어조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 ㉠ ⑤ [해설] ㉠은 정숙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정숙이 피아노에 엮드려 우는 모습을 통해 사랑과 사회적 금기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정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정숙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되찾는 공간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18) ㉠ ① [해설] S#80은 시·공간적 배경이 낮과 안방으로 설정되어 있고, S#82는 밤과 사랑방으로 설정되어 있어 두 장면 사이에 시·공간적 비약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어주는 S#81은 ‘컷 어웨이’(cut away)에 해당한다.

19) ㉠ ④ [해설] 이 글은 지식인의 눈에 비친 1930년대 경성의 풍경과 그 속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작가 자신이 자신의 창작 기법에 ‘고현학’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처럼, 경성 시내의 풍경과 사람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삶의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의 삶을 억압한다는 것이나, 작고 소박한 것이 아름답다는 것, 현실의 비극을 초월하여 살아가고 싶다는 것, 사람들의 심층 심리를 분석한다는 것 등은 이 작품의 초점이 아니다. 작가는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듯이 작품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

20) ㉠ ④ [해설] 백화점에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식민지 사회의 변화 조짐을 보여준다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다. 백화점에 나들이 나온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소재로 쓰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 구보가 추구하는 행복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이 주는 행복은 아니다. 그래서 구보는 이들의 행복을 업신여기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이 갖지 않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이 주는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축복해주려는 것이다.

21) ㉠ ② [해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지로 떠난 후, 구보는 자신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보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은 ②이다. ②는 김광균의 <와사등>의 일부로서, 도시 한 복판에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형상화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은 박팔양의 <밤차>의 일부이다. 이 시는 추방당하는 유랑민의 비애를 거친 호흡과 직설적인 어법으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③은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의 일부이다. 이 시는 젊은이가 암울한 일제 식민지 현실을 눈물로만 보낼 수 없다는 강변(強辯)을 담은 것으로 고향과 정든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서글픈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④는 양주동의 <조선의 맥박>의 일부이다. 이 시는 일제 치하의 암담한 현실에서 민족 부활의 미래를 ‘튼튼한 젊은이’, ‘어린 학생’ 등에서 발견하며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작품이다. ⑤는 윤공강의 <지렁이의 노래>의 일부이다. 이 시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두 동강으로 몸뚱아리가 잘려도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지렁이를 통해서 민족의 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22) ㉠ ② [해설] ‘새’는 관형사로서 띄어써야 하므로, ‘새웃’은 ‘새 옷’으로 써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접두사이므로 어근에 붙여서 쓰는 것이 맞다.

23) ㉠ ⑤ [해설] <보기>에 제시된 조건은 아낙네의 행동을 인간의 본성과 관련지으라는 것과 오늘날의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것인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⑤이다. ⑤의 첫 번째 문장은 아낙네의 행동을 인간의 본성과 관련지은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세태를 분석한 것이다. ①, ③, ④는 세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다. ②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빠뜨렸다. 아울러 ③과 ⑤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은 아낙네의 행동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들이다.